



◀ 27일 오후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에 도착한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기호순·왼쪽부터) 후보가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

승부 분수령... 물고 물리는 삼각 비방전

대통합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세 후보(기호순)는 승부의 분수령이 될 광주·전남 경선을 이틀 앞둔 27일 모든 역량을 집중해 승기를 잡기 위한 각축전을 벌였다. 각 후보 조직들은 선거인단을 상대로 후보 알리기에 적극 나서는데 한편, 지지세를 표로 연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세 후보는 모두 27일 토론회와 합동연설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 등 비방전이 재연되는 조짐을 보였다.

◇'내가 이명박 이길 후보' =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피·눈물도 없는 성장지상주의자 ▲구시대적 사업수완으로 성공한 건설회사 사장 출신 ▲부정선거로 쫓겨난 비리 정치인 ▲부패 비리와 부정 축재자 ▲대변화기의 한반도 정세에 무지한 기회주의적 상황론자 ▲그릇된 여성관과 장애인 천대 ▲잘못된 역사관 등 '7대 불가불'을 펴며 자신의 승리를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또 조직·동원선거 의혹에 대한 당 공식 조사결과가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발표되자, 손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역공을 펼쳤다.

손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대선은 물건너갔으니 당권이나 공천이나 쟁기자, 고향

孫 "민주당 분당 주역·盧대리인 본선 필패"
鄭 "李측서 전·현 관료 동원 신중 관련선거"
李 "나만이 망월동 묘역 문힐 유일한 후보"

사람이나 쟁기자 하는 패배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며 "광주정신은 패배주의가 아니고 승리의 정신이다. 민주당 등과 대연합을 통해서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이명박 후보를 이기려면 아직도 신당에 마음을 주지 않는 중도개혁 세력을 끌어와야 한다"며 "참여정부 실정 책임자, 민주당 분당의 주역,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 이런 분들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이명박에게서 중도 개혁세력을 가져 올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저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이며 모든 후보 중 유일하게 망월동 묘역에 문힐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그곳에 제 뼈를 묻기를 소망한다"며 광주 표심을 호소했다.

그는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모신 통합의 후보이며 한나라당이 두려워하는 후보"라며

"이번 대선을 못 이기면 정권을 되찾는데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본경선에서 이명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광주·전남인들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상호 비방전 재연' = 정 후보 측 민병두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조순영의 아침저녁'에 출연, "아이 러브 이해찬" 팬클럽 사이트에 가면 용산전자상가에서 노트북을 대량으로 연결해서 돌아다니면서 휴대전화 투표에 대한 대리접수를 하자고 하고 있다"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휴대전화 투표에 대해서까지 이처럼 비참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모바일(휴대전화) 선거인단 동원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 김영주 의원은 "정 후보 측이 우리가 불법 집단 타락 선거를 일삼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르고 있다는 건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후보 측 문화진 선대본부장이 전남 영축철 중공업특별위원회장과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이 후보를 돕고 있다며 '신중 관련선거'라고 비난한 데 대해 김 의원은 "황당한 허위 사실"이라며 "영 위원장은 선관위에 문의해본 결과 정치활동이 가능한 분이고 송 위원장은 이해찬 후보 캠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손, 이 후보가 정 후보에 대해 공격을 집중했다. 이 후보는 "정 후보가 지난해 지방선거 패배 후 대담 열린우리당이 실패했다고 했을 때 (정 후보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정 후보는 정당주역으로서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정 후보는 2002년 민주당 경선 당시 '호남 편중인사가 민심이반의 원인'이라고 했다"며 "정 후보가 민주당과의 신의도 저버려 호남지역에서 아직 신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는 정 후보의 열린우리당 탈당을 겨냥, "민심이 열린우리당에서 돌아서니 정치적으로 벗어났다는 자세가 뚜렷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어느곳에서나 투표 가능

대통합민주당 대통령 후보 광주·전남 경선은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광주지역 5개 구, 전남지역 22개 시군별로 지정돼 있다. 주로 시군구청, 선거관리위원회, 체육관 등에 투표소가 마련돼 있으며 자세한 투표 장소는 신당 홈페이지(http://www.undp.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충군에 사는 선거인단이 광주 동구에서 투표가 가능하듯 투표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

국민경선선거인단 등록자의 경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당원증을 제외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국가유공자증·자격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단 선거인단 누락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거인단 신청을 했더라도 투표장에 가기 전에 광주시당(062-385-8400~1)과 전남도당(062-225-1219)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날 투표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날 최종 개표 결과는 오후 7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는 후보가 선대위원장 맡을 것"

김효석 원내대표

대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7일 "(경선에서 후보들이) 지더라도 서로 (이건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손학규 후보는 22일 '만약 지면 이긴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하겠다'고 했고, 정동영 후보도 21일 '손 후보가 이긴다면 선대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선을 하더라도 같은 이 생각이 마련되지만,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싸움에 비하면 양반"이라며 "후보간에 연합해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야 우리가 산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올해 초 고건 전 총리

사퇴 이후 거의 40%를 보였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지금은 신당 후보들보다 뒤진 10%대로 떨어지고 있다. (신당) 후보가 나오면 더 하락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 치러지는 광주·전남의 경선 투표율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석 민심과 관련, 그는 "아직 많은 분들이 신당에 대해 '도로 열린우리당'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한나라당 독주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빨리 대표선수를 뽑아서 이명박 후보와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 출신 '8인 모임'의 손학규 후보 지지 논란과 관련, "민주당 출신 몇 명이 경선 흥행을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론이 선언을 한다든지, 특정 후보 지지를 공개표명한 사실이 없다"며 "오해 받을 수 있어 모이는 것조차도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당 경선특위 "동원선거 물증 확보 못해"

대통합민주당은 27일 정동영 후보측에 대해 제기된 '버스대기' 등 총북지역 동원선거 의혹과 관련, 현장실사를 벌였으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 산하 공정경선특위(위원장 김상희 최고위원)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승합차를 이용한 선거인단 동원 의혹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 10명의 선거인단 포함 의혹 ▲보은, 옥천 지역 군수들의 선거개입 의혹 ▲대형버스 5대를 동원한 선거인단 수송 의혹 등 4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옥천 지역 승합차량 동원 의혹과 관련, 손 후보측이 제출한 휴대전화 사진 2장이 있었지만 해상도가 떨어져 사람과 차량 번호 식별이 어려웠고 지역 선관위도 2대 이상 들어온 차량이 없다고 답해 추가조사가 불가했다"며 "버스 5대 동원 의혹에 대해서도 관내에 운행한 차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은군청 공무원 부분에 관련해서는 "본인들의 동의 없이 선거인단에 참여했다는 진술이 있었고 10명이 모두 서류접수된 것

로 확인됐다"며 "대리인 신분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징계·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후보들은 공수를 바퀴 날 선 공방전을 펼쳤다. 그간 선거인단 동원 논란 속에서 수세국면에 몰렸던 정 후보측은 즉각 손학규 이해찬 후보를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손학규, 이명박 후보측은 "조사결과가 미흡하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추가 의혹제기로 방어벽을 치고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당 전남도당 개소식

대통합민주당 전남도당이 27일 개소식을 갖고 당무를 시작했다.

대통합민주당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사무실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10여명과 박광태 광주시장 등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지방의원, 당직자,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당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대선 필승'을 결의했다.

신중식 위원장은 "신당의 중심이며 정권 창출의 시발점인 전남 도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올 연말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겉고 뒤편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엔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산화,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섭취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광고실의전화 928-0200